





**〈상속자들〉 시청률 20% 돌파, 동시간대 1위 - 경쟁작 큰 폭으로 따돌려**



방송 전부터 초호화 캐스팅과 스타 제작진의 만남으로 화제가 되었던 〈상속자들〉(극본: 김은숙 연출: 강신화)이 매력적인 캐릭터와 재미 있고 세련된 대사, 이민호와 박신혜, 김우빈 등 배우들의 호연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으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극의 중반을 넘어선 11월 20일(수) 방송에서 시청률 20.6%(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21일(목)에는 22.1% 기록, 타방송사 드라마의 시청률을 크게 따돌리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였고, 수도권 일일 시청률 이틀 연속 1위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이민호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팔로워수가 1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향후 〈상속자들〉은 서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탄이 자신의 틀을 깨는데 이어 사회배려자집단을 차별하는 학교의 잘못된 틀을 깨기 위해 노력하고, 은상과 탄의 사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어 마지막까지 흥미를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품격이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K팝스타3〉 첫 방송으로 증명하다**



제작 단계에서부터 차원이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의 화려한 귀환이라는 기대 속에 주목받아 온 〈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 시즌3〉(이하 K팝스타3)가 〈일요일이 좋다 - 맨발의 친구들〉 후속으로 11월 24일(일) 오후 4시 55분에 첫 방송되었다. 이전 시즌에 비해서 오디션 개최 지역을 늘리고 새로운 시각을 가진 유희열을 영입하는 등 과감한 변화를 시도한 〈K팝스타3〉는 시즌 1~2를 거치며 더욱 견고한 심사기준을 확립한 양현석, 박진영과 이번 시즌에 합류한 유희열이 심사의 스펙트럼을 넓혔고, 뛰어난 실력과 다채로운 매력을 겸비한 차세대 뮤지션들이 첫 회부터 두각을 나타내어 눈길을 끌었다.

미국의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칸 아이돌 시즌 11(American Idol 11)〉에 출연하여 아시아인 최초로 파이널 라운드에 올라 TOP 9까지 진출했던 한 희준, 자작곡을 선보이며 호평을 받은 정세은, 시즌1 이후 2년 만에 다시 참가하여 크게 발전한 모습으로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킨 이채영 등 수준 높은 참가자들이 흥미진진한 오디션 무대를 선사하여 〈K팝스타3〉의 위상을 실감케 하고 있다.

또한 〈K팝스타3〉가 방송 전인 11월 22일(금)부터 첫 방송 당일인 24일(일)까지 3일간 SBS 라디오와 함께 공동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 한강 상공을 비행하는 K팝스타3 홍보 비행선을 SBS 라디오 DJ의 안내멘트를 듣고 인증샷을 찍은 후 응모하면 경품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시·청취자의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는 시청률 상승으로 이어져, 첫 방송이 〈맨발의 친구들〉 최종회(5.4%)보다 오른 8.4%(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를 기록하였다. 향후 〈K팝스타3〉는 재능과 열정을 겸비한 참가자들의 성장과정을 통해 감동과 재미를 전달하여 일요일인 방국장의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빛나는 배우들과 제작진의 조합 〈별에서 온 그대〉 12월 방송**



최근 출연작을 잇달아 흥행에 성공시키며 영화계의 흥행보증수표로 자리잡은 전지현, 김수현과 〈내조의 여왕〉, 〈낭클레 굴러온 당산〉 등을 히트시킨 박지은 작가, 〈바람의 화원〉, 〈뿌리 깊은 나무〉 등의 명품드라마를 연출한 장태유 PD가 이색적인 픽션판타지 로맨스로 12월에 시청자를 찾아간다. 400년 전 조선시대에 UFO를 타고 온 외계인과 즉흥적이고 인하무인인 톱여배우가 펼치는 환상적이며 달달한 사랑 이야기로, 연말을 맞은 연인과 가족들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최고의 스타 배우와 제작진이 의기투합한 〈별에서 온 그대〉는 〈상속자들〉 후속으로 12월 18일(수)부터 매주 수~목 밤 10시에 방송된다.

**창사특집 〈최후의 권력〉 '7인의 빅맨' 화제**

SBS 창사특집 대기획 〈최후의 권력〉 1부와 2부가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화제다. '7인의 빅맨'을 시칭한 많은 네티즌들은 〈최후의 권력〉이 신선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칭찬하면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창사특집 〈최후의 권력〉은 우리시대 진정한 리더상을 계조명하고, 공동체 목표를 향해 가는 권력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답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최후의 권력〉은 11월 24일에 21세기 왕들을 통해서 본 권력의 속성을 담은 3부 '왕과 나'를 방송하였고, 12월 1일은 돈의 위력에 좌우되는 미국 정치권과 외면당하는 서민을 다룬 4부 '금권천하'를, 12월 8일 5부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의 '피플, 최후의 권력'을 방송할 예정이다.



**이영애, 주한 외교 사절과 한식 만찬 화제 SBS 설 특집 다큐멘터리 〈이영애의 만찬〉**

지난 20일 배우 이영애가 서울 삼정사에서 수많은 주한 외교 사절을 초대해 '이영애의 만찬'을 열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영애는 SBS 설날특집 다큐멘터리 〈이영애의 만찬〉 제작팀과 함께 과연 한국음식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6개월의 긴 여정을 하고 있다. 그 피날레를 장식할 이 날의 만찬은 오는 2014년 SBS 설 특집 다큐멘터리 〈이영애의 만찬〉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김삼일 PD가 말하는 〈서두원의 휴먼 토크 사람들 읽다〉**

〈서두원의 휴먼토크 사람들 읽다〉라는 프로그램에는 그간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 최근 '객주'라는 대하소설을 완간한 김주영 작가는 모름지기 작가가 젊은 감성을 상실하면 그 순간 작가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성을 유지하는 나름의 비법이라고 소개하는 게 '야동'을 즐겨 보는 거란다. 그리고 새벽녘에 TV를 켜놓고 '탄력적 쇼'를 시청한다. 아름다운 여성을 만날라치면 밤 한 그릇 나눠 먹으려고 수작을 부리기도 한다. 문단에서 존경받은 일흔 다섯 노작가의 대목 없는 투명함이 곤혹스러웠다. 그레도 문단 원론대 편집하는게 낯뜨겁게 싫었지만 집권은 남고 가위를 대지 않았다. 청취자들로서는 '야동' 주영 노작가가 한층 더 인간적으로 다가왔을 터다. 지휘자 금남세 씨는 우리 방송에 나와서 젊은 시절 유희 얘기를 해줬다. 해외 여행이 자유롭지 않던 20대 중반에 친우으로 유럽에 갈 기회를 얻었다. 바로 귀국해야 하는 짧은 비자였으나 청년 금남세는 무슨 배짱인지 당대 독일에서 제일가는 무빈스타인인 지휘자한테 무작정 전화를 걸었다. 한국에서 온 청년인데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하니 대뜸 집으로 오라 했단다. 그 날 이후 금남세 청년은 일종의 불법체류 상태에서 무빈스타인의 제자가 됐고 얼마 후 국제 지휘자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금남세는 스승 무빈스타인에 대한 고마움으로 평생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음악 학도들을 기꺼이 만나주고 있다고 했다.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금남세가 우리 방송에 나간 다음 날 신문에서는 금남세 지휘자가 서울예고 교장에 취임한다는 기사가 떴다. 클래식 음악계의 돈키호테에게 또 하나의 직함이 주어질 것이다. 야구의 신, 줄여서 '야신'이란 별명을 가진 김성근 감독은 우리 방송에 나와서 야신이란 별명 보다는 선수들이 붙여준 '악마'라는 별명을 더 좋아한다 했다. 그 악마 김성근도 TV 중계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는데... 고양

**〈박은지의 파워 FM〉 '박은지가 필요해' 청취자들의 큰 반응 이끌어**

매일 아침 7시, 청취자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나눠주는 방송 〈박은지의 파워 FM〉 DJ 박은지가 사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바로 화제의 코너 '박은지가 필요해' 때문인데, 박은지가 필요해는 청취자들의 사연을 받아 DJ 박은지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일을 도와주는 라디오에선 찾기 힘든 신개념 코너이다. 최근 뽕질, 우체국, 아동폭력 방지 캠페인 현장 등에 출동한 DJ 박은지는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직접 일손을 도우며 청취자들과 함께했다. 박은지는 특유의 친화력과 밝은 에너지로 일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이 생황 중 문자를 보내는 등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11월 28일(목)에는 생방송 중 사연이 소개되었던 심장병 소아의 병원을 방문, 청취자들의 사랑이 담긴 헌혈증을 전달할 예정이라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박은지의 파워 FM〉은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107.7 파워 FM에서 만날 수 있다.



**연예자시 | '우리만 아는 방송 기술 이야기' ③ '3DTV 본방송, 또 하나의 세계 최초~'**

술적 노력은 생각보다 험난했다. SBS는 이 서비스를 위해 3DTV 비디오서버, 3DTV PSIP(EPG) 및 Seamless Stream 스위처 등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였으며, 이들을 종합한 3DTV 방송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특히 2D방송을 하다가 3D방송으로 넘어갈 때 눈에 거슬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겨주는 기술인 Seamless Stream 스위처는 본방송 실시를 위한 핵심기술이다. 도록에 비유하면 요철은 요철이되, 아주 완만한 요철을 만든 것이다. 심지어 TV가 24시간 중일방송이라 실험해 볼 시간적 여건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SBS가 방송한 첫 프로그램 콘텐츠는 〈TV속 움직이는 세상 The 3D〉 1편 이었다. 총 10편으로 제작되어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SBS는 〈연일남〉, 〈수상한 가정부〉 등의 자사 인기 프로그램 일부



"4D SBS 3D 본방송에 나란까야."

3D로 촬영하였으며, 그 외에 아이돌스타 콘서트, 애니메이션, 스포츠 등 다양한 장르의 3D 콘텐츠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되었다. 11월 16일부터는 매주 토요일 밤 12시 15분에 지식나눔 콘서트 ②013 아이러브 인 시즌 4가 5주간 3D로 방송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의 전 CM도 3D로 방송되고 있다. 사실 '야마타' 열풍이 지나간 후 방송에서는 무안경 3DTV가 나올 때까지 3DTV 방송은 시가상조라는 의견들도 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최첨단 기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첫 눈에 만날 수도 있지만, 처음엔 '소담 보담' 하지만 사나보로 곁 흔하는 커플이 더 많은 것이 세상일 것이다. 자꾸 3DTV방송 경험을 하면 3D에 대한 느낌이 자연스러워 질 것이고, 그러한 장이 많이 있어야 3D 콘텐츠 제작기술도 발전할 것이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기술적으로 '잘 만든', 소위 말하는 'Artifical'가 없는 3D 콘텐츠는 아무리 시청해도 피곤하지 않았다. 그리고 방송계에서도 원래 Leading 방송사는 좀 고독하다고 믿는다. **경영지원본부 기술기획팀 오건식 부국장**

**사내 소식**

**'2013 SBS물환경대상' 대상 수상에 신안군**

'2013 SBS물환경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고철환 서울대 명예교수)는 올해의 대상으로 전남 신안군을 선정했다. 1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은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도 적극적인 환경보호정책을 펼쳐 성공적인 무공해 청정 도시를 꾸려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SBS물환경대상은 물 환경 보호에 공이 큰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엄격한 공적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한편 학생과 시민들의 물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부대행사로 진행된 물환경사건콘테스트 '다카콘가, 네 컷으로 말해요'의 수상자로는 내포초등학교 2학년 이하민 어린이(대상) 등 총 4명이 선정됐다. '2013 SBS물환경대상' 시상식은 11월 28일(목) 오후 4시 SBS 삼당동 프리즘타워에서 열리고, 12월 6일(금) 오후 4시에 방송된다.

**〈힐링캠프〉 '9월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수상**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을 섭외하여 솔직한 내면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끌어내 공감대를 얻고 있는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가 9월 9일(월) 방송된 '이달의 편'으로 〈SBS스페셜-감사화〉(사보 993호 기사 참조)와 함께 11월 21일(목) 방송회관에서 개최된 '9월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을 수상하였다.

**SBS 일산제작센터 개인분장실 리모델링**



SBS일산제작센터는 11월 15일(금) 본관 1층 개인분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번 리모델링 대상은 18년간 사용해온 개인분장실 4개와 복도로, 노후시설을 교체 및 정비하는 한편 보다 쾌적하고 세련된 공간으로 바꾸었다. 특히 개인분장실은 옷장을 늘리고 조명을 밝게 하는 한편,

**김주희 아나운서, 사진전시회 개최**



제작본부 아나운서팀 김주희 사위가 사진전 'In Dreams'를 개최한다. 김주희 아나운서는 이번 사진전에서 동화같이 아름다운 프라하와 체스키크룸프트를 여행하며 담은 총 78점의 사진을 선보인다. 이 작품들을 통해 카메라를 들고 홀로 여정을 밟아 온 김주희 아나운서의 새로운 면모가 공개될 예정이다. 전시는 12월 3일(화)부터 10일(화)까지 인사동 공아트스페이스 제 1, 2 전시실

에서 오픈하며 오프닝은 12월 3일 오후 6시 방송인 김제동의 사회와 가수 하림의 무대 등으로 꾸며진다.

**해외연수제도 변경 시행 안내**

직원들의 전문역량과 소양 개발을 위해 실시해온 해외연수 제도가 새롭게 개편된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개편되며, 연수자 선발 절차도 본부별 조직 운영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본부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기존의 중기 해외연수를 글로벌 테마연수로 통합하여 연수 기간, 지역, 주제의 선택 폭을 크게 넓혔다는 점이다. 올해부터 도입된 글로벌 테마연수의 기간을 지원자가 최소 2주에서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다양한 형태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4주 이내의 단기연수는 현장체험을 중심으로, 1개월 이상의 연수는 직무교육과 현장체험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실시한다. 연수자 선발절차는 각 본부별 '연수심사위원회'를 두고 '연수 후보자'를 1차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본부별 업무특성과 연수주제, 기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본부별로 선정된 연수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연수자를 최종 확정한다.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연수자를 정기적으로 선발하며, 본부별로 특별한 요청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선발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특파원 후보 양성을 위한 '지역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비영어권(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등) 지역 중심으로 현지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추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약 3개월의 어학능력 집중 향상 프로그램과 글로벌 테마연수를 혼합한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변경된 해외 연수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연수자 선발 시에 다시 공지할 예정이며, 직원 개개인의 역량개발과 회사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수제도 마련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그룹 소식**

**MEDIACRE 2013년 4분기 MC 특강 실시**



미디어크리에이티브는 11월 21일(목)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세미나룸에서 2013년 4분기 MC특강을 실시하였다. 미디어크리에이티브가 인제육성 체계의 일환으로 지식 및 트렌드 공유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한 이번 특강에서는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Mining Minds(빅 데이터, 유망을 읽다.)'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SBS-SBS ESPN 이순철 해설위원 영입**

'프로야구 해설계의 거성'으로 사랑받았던 이순철 현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 협회장이 약 2년 만에 중계석으로 돌아온다. 이순철 회장은 SBS, SBS ESPN과 프로야구 해설자 계약을 마쳤으며, 2014 프로야구부터 중계석 마이크를 잡는다. 이순철 해설위원은 오는 30일(토) 오후 2시부터 SBS ESPN에서 생중계 하는 <2013 한일프로야구 레전드 슈퍼게임>을 통해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SBS CNBC 강연프로그램에 베르나르 베르베르 출연**

SBS CNBC 〈인문학, 최고의 공부-나는 누구인가(Who am I?)〉에 세계적인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출연했다. 지난 17일(일)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진행된 녹화에는 5천 여석을 꽉 채운 강연 참석자들로 열기가 가득 찼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강연은 11월 29일 금요일 SBS CNBC 〈인문학 최고의 공부-나는 누구인가(Who am I)〉를 통해 방송된다.